

韓 기술경쟁력, 세계 20위권 추락

현대경제연 'R&D 투자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8년 새 기술 수용성 27위
혁신 경쟁력 19위로 추락
기술혁신 성장기여율 증가
"R&D 투자 확대 지속해야
기초연구 분야 투자 필요"



통신요금 절약백서 2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통신비 경감 소비자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통신비용 절약방법에 대한 맞춤형 요금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내용을 알리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 경제의 기술 혁신 의존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술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 2500대 R&D 기업들의 경우 지난 2012년 4.9%였던 R&D 투자 증가율을 2014년 6.8%까지 늘렸다.

반면 국내 제조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13년 약 17%에 육박했던 R&D 투자 증가율은 2014년 -3.1%로 내려앉았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기술 수용성·혁신 경쟁력)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세계 7위였던 우리나라

의 기술 수용성은 지난해 27위까지 떨어졌다.

혁신 경쟁력 순위도 같은 기간 8위에서 19위로 급락했다.

기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 혁신에 더욱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7%,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점차 하락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칠 성장기여율은 2016~2020년 48.1%, 2021~2025년 56.5%, 2026~2030년 65.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컨설팅실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R&D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용·개발연구보다는 모방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업성이 떨어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또 "앞으로 서비스업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만큼 서비스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와 IT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와 같이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결합해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논란'

국토부 이달 중 결정... 구글측 자세가 변수 될 듯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쟁점은 국가안보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지도 정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2007년 반출을 거부당한 후 9년만이다.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를 쉽게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로 길을 원활히 찾게 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네이버와 다음 지도는 접근성이 어렵고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구글 위성 지도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도의 민감한 부분을 보안처리

해 반출하란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구글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또다른 쟁점은 서버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여론이 많다. 지난 달 15일 모바일 메신저 '라인' 상장 기자회견에서도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의장은 "구글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거둬들이지만 한국 이용자 정보사용내역과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는다"며 "인터넷기업은 이용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구글의 태도는 사업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불공정·unfair)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구글의 정밀 지도 해의 반출 허용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글로벌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글측은 서버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시설이고,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구글 지도의 본질적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농협금융, 조선·해운 '충당금' 쇼크로 적자

농협은행 올 상반기 당기순손실 3290억원... 조선·해운 충당금 1조1200억원 적립

NH농협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농협금융은 상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당기순손실 2013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명칭사용료를 제외한 당기순손실 규모는 592억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금융은 매년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지불한다.

농협금융의 상반기 대규모 적자는 예견된 수준이었다.

지난 5월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충당금 적립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바베

스를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적된 회계손실을 한번에 처리하는 빅배스(Big bath)를 시현해 부실을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등 비은행 부문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으나 NH농협은행의 실적이 부진했다.

농협은행은 당기순손실 3290억원을 기록했다. 명칭사용료 부담 전 당기순손실 규모도 2094억원에 달했다.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충당금 부담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총 1조3589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STX조선 4398

억, STX중공업 1138억, 창명해운 2990억 등 조선·해운업에 대한 충당금 비용이 1조1200여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당금은 부실 대출에 대비해 은행이 쌓아두는 돈으로, 충당금 규모가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은행은 대출 회수 가능성에 따라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한다. 추정손실로 갈수록 회수가 능성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충당금 적립액도 커진다.

농협은행은 조선·해운 업종에 대해 5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안고 있어 충당금 부

담이 컸다. 이번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약 2배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 농협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93.88%로 전년 말 대비 14.23%포인트 상승했다.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1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비이자이익도 21.5% 상승한 1370억원

을 나타냈다. 대출자산과 예수금은 각각 190조 3000억원과 1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1%, 2.4% 늘었다.

농협금융의 연결기준 자산은 전년 말 대비 6.9% 증가한 363조2000억원, 대출채권은 5.4% 상승한 208조7000억원이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꾸준히 늘었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흑자로 전환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수당체계 개선한다

모집인 대출 72% 급증·전체 대출의 25%... 과다 경쟁 부작용

지난해 모집인을 거친 저축은행권 대출 규모가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실적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3억6000만원)보다 2조6000억원(72%) 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가 25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5% 정도가 모집인을 통해 빌린 셈이다.

신용대출은 2조6000억원(28만6647건), 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13만9683건)이었다.

작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대출모집인을 운영 중인 곳은 56곳이었다. 이들 저축은행에 속한 대출모집인은 총 3197명으로 금융권 전체의 28.7%에 달했다.

저축은행이 대출모집 수수료로 지급

한 금액은 총 1578억원으로 집계됐다. 모집수수료율(수수료/대출모집액)은 평균 2.6%이며, 신용대출(3.8%)이 담보대출(1.6%)보다 2.4배 높았다. 통상 신용대출의 금리는 20% 내외로 담보대출(7~9%)의 2배 이상이다.

모집인의 대출 실적이 급증한 것은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수당체계 불합리해 과다 경쟁을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면 경우 모집수당을 회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당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뉴시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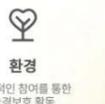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